

#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 제안

민주 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간담회

장애인 '표현의 자유'  
보장 가능 환경 구축  
저상버스 슬로프  
고장률 정기 점검  
망가진 보도블록 등  
개선·보완체계 마련 등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주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동근숲'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간결한 마음을 듣는 소풍의 장이 열렸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주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동근숲'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수 있기를"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정책제안자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열악한 사회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과 보완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이 사회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누구나 공평하고 편안하게 누려야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리는 어떤 시선을 보고 받아들이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승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증진사업 100인 미만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의 접근성 문제에 따른 노후된 건물 보완과 이동식 경사로 활용 활성화 지원 정책 제안 ▲장애가 있어도 장소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언론, 표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화장실 공공화 및 확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에 나선 유니버설

시민모니터단 이동한 활동가는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장을 주제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동한 활동가는 ▲저상버스 슬로프 고장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동식·전자동식 슬로프 안전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저상버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보완 ▲노후된 버스 정류장 교체 및 보완 ▲교통약자 탑승 전광판 위치 확보와 정류장 내 스크린 높이 조절 범위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교육 범위화 정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 정책 제안으로 나선 흥진 사회복지사는 보행환경에 관한 주제로 제안했다.

흥진 사회복지사는 ▲모두가 보행하는 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자블록이 없는 인도, 망가진 보도블록, 경

사로가 없는 상가, 자물쇠가 없는 건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개선·보완체계 마련, ▲보행환경에 관련한 문제를 '환경 조성의 문제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 모인 전주 시민들은 작은 것부터 변화하는 유니버설 도시 구축을 위한 발리시 사업 실행에 대한 권유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신규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장애인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지역 인구 유출 막아야”

민주 김윤덕 의원, 지역대학 발전 관련  
앞서 치매극복 간담회 열고 예방책 논의

김윤덕(전주갑)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역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공공기관 지역 인제 채용비율을 50%까지 상향하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이어, "전북의 청소년, 청년의 인구 유출이 지역대학 위기와 무관치 않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대학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 총장협의회 연합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방대학 살리기 5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는 청원문을 발표한 이유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 인제 채용 비율은 2018년 18%로 시작해 법으로 규정된 30%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채용 시에의 규정을 적용해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채용에 더해 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 추가 채용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지역대학, 지역정치권과 합심해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3대가 같이 사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과 기업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여러 요소들을



지난 21일 열린 치매극복 간담회. (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

고려해 지역대학 살리기, 인구유출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전북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일 도내 치매 예방을 위해 최 일선에서 일하는 (사)중앙치매예방관리협회 김순자 대표를 비롯해 도내 치매 예방 강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아버지가 치매를 앓다 돌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치매에 관심이 많고, 사비를 털어 일본 견학을 갔을 정도로 치매 극복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다"며 "치매 치료와 돌봄 등 치매에 걸린 환자에 대한 복지시스템은 확대 발전시키고 이에 더해 예방적 차원의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중앙정부에 치매 예방을 위한 공백부문을 채울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치매 전문병원, 치매교육센터 설립, 치매 강사 양성, 치매 관련 종사자 교육 등 치매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치매 관리 시스템 1등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공공처리시설 설치 토지 사용 규정 근거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관리·이용 개정법안 등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동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한편,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제출했다.

/유호상 기자

## 국감 우수의원 '국민복상' 수상

민주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이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상까지 받으며, 3관왕에 오르게 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상까지 받으며, 3관왕에 오르게 됐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도별 경제력지수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최하위에 이르고 있음을 제시하며 열악한 지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민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 2021년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써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에너지 사업화 문제, 벼 병충해 문제,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해외농업개발 문제,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 밀·콩 자급률 문제,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채리 요구 등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호상 기자

## “경기장-대안방직 용도 통합 조정 제3의 개발 바람직”

임정엽 전 완주군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전주중합경기장과 대안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용도를 통합해 재배치하는 방식의 제3의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임 정 군수는 24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욕구, 전주 발전, 기업의 존속이란 세 가지 원칙 아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합경기장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 유통시설, 대한전직터의 상업용과 관광시설이 중복된 문제점이 있어 용도를 통합 조정해 새로운 개발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정 군수는 또 전주역신도시 2단계 공공기관 입주 대비와 도시 발전을 고려할 때 백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들 현안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옥마을을 연계한 아간경 제투구를 조성해 경제가 꿈틀거리도록 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권을 중심으로 미래형 기업이 넘쳐나도록



록 융합현실 기반의 미래콘텐츠(컨텐츠) 센터를 건립해 미래형 청년일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역화폐의 파격적인 증액과 배달업 수수료 제로시대, 그리고 로컬 푸드의 신화를 되살린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정책 등 7개 분야 50개 실행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 군수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높이 평가하고 모든 후보의 공약을 서로 공유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선거운동 기간 치열하게 토론할 것도 제안했다.

/김윤상 기자

## “시각장애인 권익보장·지위향상에 앞장설 것”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24일 전주시시각장애인협회(회장 노창욱)를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생활현황은 물론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의장은 이날 장애인에 대한 복지공약이 부족하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정읍 발전 위해 이재명에 압도적 지지 보내야”

민주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오늘 3월 9일 투표를 80%이상, 득표율 90%이상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를 목표로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선대위 결의대회에 명칭을 '8000 필승 결의대회'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읍·고창지역 투표율 80%이상, 득표율 90%이상의 목표를 세웠다"며 "그러기 위해서 젊은 청년층인 80·90년대생과 80대와 90대 어르신까지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투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24일, 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읍·고창지역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읍·고창지역 투표율 80%이상, 득표율 90%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하며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번 대선은 정읍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왕이면 압도적 투표율과 득표율로 지지를 보내 대선 기여도가 높아 정읍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고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투표율 80%와 득표율 90%의 목표를 초과달성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